

지역아동센터 이용청소년의 차별 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선희¹, 박명선², 고백합³, 손은정³, 우안순⁴, 이재봉^{4*}

¹서정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교수, ²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³한세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학생,
⁴한세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교수

The Influence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of Adolescents Using Local Children's Centers on Adaptation to School Life: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Sun-Hee Kim¹, Myoung-Sun Park², Baek-Hap Ko³, Eun-Jeong Son³,
Ann-Soon Woo⁴, Jae-Bong Lee^{4*}

¹Professor, Dept.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Seojeong University

²Professor, Dept.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Lifelong Education Center, Gyeonggi University

³Student, Dept. of Office, Graduate school Hanse University

⁴Professor, Dept.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Hans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의 차별 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 있어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에서 자료를 수집한 아동패널조사 1기 6차년도(2016)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패널 자료는 조사 시점에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며 현재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총 392명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연관된 변수들의 상관분석, 조절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량 분석, 상관분석 및 조절효과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절변수인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차별 경험과 학생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완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의사소통의 방법과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캠프 등의 실천적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획득된 결과는 지역아동센터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넓히고 사회적 개입의 효과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지역아동센터 이용청소년, 차별 경험, 학교생활적응, 부모-자녀 의사소통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discrimination experiences of adolescents currently using regional children's centers on school life adapta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in the process. Data from the first sixth year (2016) of the Children's Panel Survey, which was collected by the Central Children's Center, were used. At the time of the survey, the sample was selected from a total of 392 adolescents who were enrolled in the third year of middle school and currently living with their parents. This study analyzed the correlation 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school life adaptation of adolescents using local children's center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control effects to explain the moderating effec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parent-child communication, a modulating variable, has a buffer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rimination experiences and student life adaptation. To this end, it sought to develop practical programs such as communication methods and parent-child camps.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broaden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n adaptation to school life of local children's centers and to prepare appropriate policy visits to expand the effects of social intervention.

Key Words : Youth using local children's centers, Discrimination experience, Adaptation to school life, Parent-child communication

*Corresponding Author : Jae-Bong Lee(skhu2007@hanmail.net)

Received September 22, 2020

Revised October 8, 2020

Accepted October 20, 2020

Published October 31, 2020

1. 서론

청소년들은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갈 우리나라의 미래라 할 수 있다. 청소년 시기는 개인과 가족, 그리고 속해있는 여러 집단, 지역사회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의 근본 주체로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고 가치관이 정립되어 자신의 능력과 감정을 개발하여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 시기에 본인들이 추구하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1].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들은 넘쳐나는 정보와 급속도로 변해가는 기술의 발전으로 가치관의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 문제가 끊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곳 또한 학교라 할 수 있다. 학교는 서로 다른 성장환경과 생각은 물론 성숙을 향해가는 질풍노도의 또래집단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배움의 공간인 것과 동시에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왕따, 게임중독, 인터넷 중독, 자살 등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어려움에 겪게 된다.

현재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는 주로 아동의 학업수행과 성취 같은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해 왔지만, 최근에는 학교생활적응을 하나의 개념이 아닌 다양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교사나 친구, 학교의 규칙 준수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등 학교환경에 대한 적응을 포괄해서 다루고 있다[2].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은 아동의 특성과 학교환경이 아동을 교육함에 있어 교육적으로 그 적합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학업성적과 학교에서의 대인관계, 개인의 정서적 적응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 한다.

청소년은 학교폭력이나 따돌림과 같은 차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성적이나 외모 때문에 차별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10명중 3명 이상이 있다고 하였다.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 중 학업이 가장 많았고, 나이, 성별, 외모 순이었다. 이중에 학년이 높을수록 성적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이 크게 증가 했다. 초등학생은 4.7%였지만 중학생은 18.3%, 고등학생은 27.5%를 고학년이 될수록 증가하고 있

다. 차별을 경험한 청소년의 85.5%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려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32.5%에 불과 하다. 또한 한 번이라도 차별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전체 응답자의 24.9%였으며, 이 중에 외모에 따른 차별 가해 경험(13.1%)이 가장 많았고, 나이(6.8%), 장애(6.5%), 학업성적(5.9%), 성별(5.9%) 순으로 나타났다[3]. 청소년들이 차별로 인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험을 가지게 됨으로써 고통의 연속선상에 있지만, 이것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별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의 한 유형이라 볼 수 있으며, 사회적 차별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추후에는 좋지 않은 생각을 하는데 영향을 준다.

정부는 2014년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통해 제2차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학교폭력 관련 정책 추진방향과 과제를 제시했지만 차별과 관련된 대응방안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청소년 관련 연구에서도 학교폭력, 따돌림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을 뿐 청소년 차별에 관련된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4].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차별 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과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 오락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2016년 기준 전국에 4,107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운영기간을 보면 5년-10년 미만은 1,958개로 47.7%로 가장 많으며, 10년 이상 된 지역아동센터는 1,292개로 31.5%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106,668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중학생은 18,156명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학생 중 연구 대상인 중학생 중에서 차별 경험이 있는 학생이 어떻게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정통적인 가족구조는 혈연중심의 대가족제도 안에서 조부모나 여러 어른들에게 예의범절과 질서인식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었으나, 핵가족 중심의 현 가족체계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과 교육 등 모든 것을 전담하게 되면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

게 부각되었으며, 가족 내에 형성되는 부모-자녀 간의 관계는 최초의 대인관계인 동시에 가장 밀접한 사회관계이기도 하였다. 때문에 청소년이 어떤 존재로 인정받는가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이 학교생활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자기수용,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간의 감정을 정화시키고, 정신을 건강하게 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형성된다. 그러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간 갈등을 심화시켜 타인에 대해 방어적이고 권위적인 자세로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자녀의 자기수용과 학교생활적응도 다르게 발달할 수 있으므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조절의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차별 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차별 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고찰

2.1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이란 학교수업, 학교생활, 학교의 환경, 학교 내에서 또래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관계형성요인에 대처하는 일련의 노력을 말한다[5]. 학교적응은 학교환경 또래집단 교사와 같은 의미 있는 타인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인관 관계를 원만히 수행하고 수업과 규범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독립된 한 개인이 역동적인 역할을 하는데 있어 부 적응적 특성은 개인의 기능과 환경적 특성과의 상호작용의 실패로 나타난다[6].

나아가 학교생활적응은 문제행동과 같은 학교 부적응과 대인관계,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및 학업성적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까지 개념화된다[7]. 선행 연구를 보면 학교생활의 성공적인 적응은 개인과 학교생활뿐 아니라 학교생활의 구성원인 교사와 교우와

의 관계에서 원만한 상호작용을 포괄한다[1]. “학교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만듦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순응하면서 조화롭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바람직하고 능동적 인상태”를 학교생활적응이라 보았다[8]. 학교생활적응이란 학생의 행동이 학교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서 교사나 다른 학생과 같은 타인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가면서 학교수업에 적극적이고, 학교 규칙에 순응하며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을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교수업, 학교 규칙의 영역으로 보았다[9].

학교생활적응은 “학생의 모든 행동이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친구들과 교사 등 타인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학교수업에 적응하고 학교규범에 순응하면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가는 것”이라고 하였으며[2], “개인이 학교환경에 지각과 감정,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좀 더 편안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원할 한 학교생활적응은 자신이 생활하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가지며 긍정적인 관계로 변화시켜 나가면서 교사관계, 또래관계, 학업성취, 학교규칙 등을 잘 지켜 사회인으로 한 거름 성장해 나 갈 수 있다. 학교활동에서 적극적이고 자기 주도적이며 조화롭고 안정감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긍정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10].

고찰한 선행연구의 내용과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을 수업과정과 교우관계, 담임교사와의 관계라고 정의한다.

2.2 차별경험과 학교생활적응

차별은 다른 개인과 자신이 집단에 대해 갖게 되는 고정관념, 편견을 기초로 타인과 집단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차별행동은 단순히 생각이나 정서적 측면에 끝나지 않고 부당한 태도나 행동을 하게 됨으로서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차별은 실제 피해자들의 능력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가해자들의 자의적 판단이나 해석으로 낙인이나 열등감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자들 더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3,11].

청소년기 타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청소년으로서 발

달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집단에 대해 편견과 선입견 등을 내재화하고 이를 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자아정체감 형성과정에서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확립하게 됨으로서 사회적 집단의 소속감, 집단역동(역할), 그리고 편견들에 대한 신념까지 포함한다[12].

차별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실증연구들은 대규모 표본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다.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들은 부모의 학대나 학교에서의 폭력피해 경험, 차별경험이 청소년의 차별적인 행동과 연관성이 있고, 또 인권교육의 도움정도나 인권의식 수준 등이 매개한다고 보고하였다[13,14].

청소년 차별은 단순히 인권의식의 부족에 따른 타인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놀림이나 조롱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집단따돌림이나 폭행과 같은 학교폭력 양상으로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의 청소년차별실태조사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차별한 사람은 친구, 선·후배와 같은 또래집단이며, 외모 및 학업성적 등에 따른 차별은 놀림이나 조롱으로 나타나며, 장애에 따른 차별은 집단 따돌림과 놀림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3].

앞에서 본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차별 경험은 다문화 가정,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 장애, 신체적 조건, 가정형편 및 종교가 다름으로 인해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2.3 부모-자녀의 의사소통과 학교생활적응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에는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과 자녀의 개방적 의사소통, 그리고 인터넷 사용정도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고 자녀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가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14-16], 청소년 문제행동에 있어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개방적으로 의

사소통을 할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감소했다. 앞으로 청소년 문제 예방을 위해 부모-자녀 간 대화가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청소년 자녀가 가족구성원 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개방적 의사소통을 할수록 학교에 잘 적응하고, 의사소통이 단절되거나 부족할 때, 자녀에게 부적응행동이 유발되어 학교적응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17]. 청소년자녀는 가족구성원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개방적 의사소통을 할수록 학교에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의사소통이 단절되거나 부족할 때 자녀에게 부적응행동이 유발되어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8].

청소년은 심리적 자립 과정에서 부모와 대립과 갈등을 겪지만 부모와 대화가 있어야 한다. 의사소통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보편적이며 기본적인 것으로 사람 간에 태도, 사실, 믿음,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상호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를 이해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한다[19]. 의사소통의 유형 중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감정이나 의사를 표현하는 의사소통을 말한다. 문제형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을 주저하고 주제 선택에 조심하며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부정적이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중학생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자기수용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중학생의 부 개방형 의사소통 유형과 학교적응의 합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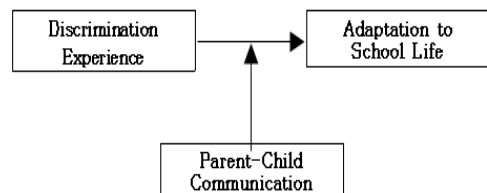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차별 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고, 독립변수인 차별 경험과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부모-자녀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에서 자료를 수집한 아동패널 조사 1기 6차년도 자료를 사용할 것이다. 이 패널 자료의 조사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6개년)까지이며, 조사영역은 차별 경험, 학교생활적응 등이 포함되었다. 조사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지만, 그동안 성장하여 6차년도에는 중학교 3학년이 되었다. 본 연구에 부합하는 392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표본으로 선정된 연구대상자는 부모,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이다.

3.3 측정도구

3.3.1 독립변인 : 차별 경험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연구Ⅳ 문항을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의 패널에서 재구성 한 것을 사용하였다.

차별 경험 척도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질문 문항을 살펴보면 '학교에서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한 경험', '학교에서 헐뜯(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음)을 당한 경험',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왕따)을 당한 경험',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심하게 맞은(폭행)경험'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긴 경험'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의 응답 척도는 '전혀 없다' 와 '있다' 로 이루어졌다. 차별 경험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과 학교 폭력에 많이 노출되어있는 것을 뜻한다. 차별 경험 척도는 범주형 척도이므로 더미처리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3.3.2 종속변인 : 학교생활적응

종속변인인 학교생활적응 변수는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에서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활용하여 구성된 것을 사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질문 문항을 살펴보면, '학교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반에서 맡은 당번과 같은 일들을 열심히 한다', '화장실이나 급식할 때

에 차례를 잘 지킨다.',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내 짝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담임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담임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등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이루어졌다. 본 척도는 모두 역 변환하여 이후 분석에 적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에서 적응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측정에 사용된 내적일관성인 Chronbach's α 계수는 0.824로 나타났다.

3.3.3 조절변인 : 부모-자녀 의사소통

조절변인인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는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의 질문 문항 구성은 '나의 고민에 관한 대화',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책, TV, 영화에 대한 대화', '정치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화', '함께 하는 여가활동(운동, 취미활동 등)', '함께 식사' 등 총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질문지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거의 하지 않는다.' 1점, '일주일에 1-2회' 2점, '일주일에 3-4회' 3점, '일주일에 5-6회' 4점, '매일' 5점으로 구성되어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에 사용된 내적일관성인 Chronbach's α 계수는 0.848로 나타났다.

3.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연관된 변수들의 특성과 상관분석, 조절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SPSS WIN21.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 분석을 실시했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변수 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빈도분석, 기술통계량 분석을 실행하였다.

둘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차별 경험, 부모-자녀 의사소통 등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행하였다.

셋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차별 경험, 부모-자녀 의사소통, 학교생활적응 간의 인과관계를 분

석하였다.

넷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차별 경험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는 SPSS 상에서 데이터 이상치를 점검하고 회귀대체 방식에 의한 결측값을 처리하여 이후 분석을 실행하였다.

4.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194명(49.5%), 여자 198명(50.5%)이고, 가족구성원의 경우 '부모와 산다.'가 243명(62.0%), '부와 산다.'는 65명(16.6%), '모와 산다.' 84명(21.4%)으로 나타났다.

부모 학력의 경우 부의 학력은 '사망, 이혼 등으로 안 계심' 82명(20.9%), '중학교졸업 이하' 32명(8.2%), '고등학교졸업' 169명(43.1%), '2-3년제 대학졸업' 25명(6.4%), '대학졸업 이상' 42명(10.7%), '잘 모름' 45명(10.7%)으로 나타났다. 모 학력의 경우 '사망, 이혼 등으로 안 계심' 63명(16.1%), '중학교졸업 이하' 35명(8.9%), '고등학교졸업' 188명(48.0%), '2-3년제 대학졸업' 28명(7.1%), '대학졸업 이상' 30명(7.7%), '잘 모름' 48명(12.2%)로 나타났다. 부모직업 유무의 경우 부의 직업 유무는 '사망, 이혼 등으로 안계심' 82명(20.9%), '현재 직업 있음' 288명(73.5%), '현재 직업 없음' 22명(5.6%)으로 나타났다. 모의 직업 유무는 '사망, 이혼 등으로 안계심' 63명(16.1%), '현재 직업 있음' 245명(62.5%), '현재 직업 없음' 84명(21.4%)이다.

경제적 수준은 '매우 못산다(기초생활수급대상)' 87명(22.2%), '차상위계층' 77명(19.6%), '사각지대' 65명(16.6%), '보통수준' 143명(36.5%), '잘산다' 20명(5.1%)이며, 전체성적만족도는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23명(5.9%),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159명(40.6%), '만족하는 편이다' 184명(46.9%), '매우 만족한다' 26명(6.6%)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건강하지 못함 편이다' 25명(6.4%), '건강한 편이다' 231명(58.9%), '매우 건강하다' 136명(34.7%)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92)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
Gender	Male	194	49.5
	Female	198	50.5
family composition	parent	243	62.0
	father	65	16.6
	mother	84	21.4
father's education	not living together, a Death, divorce, etc	82	20.9
	junior high school graduate or less	32	8.2
	high school graduation	169	43.1
	two-to-three year college graduation	25	6.4
	above college graduation	42	10.7
	don't know	42	10.7
mother education	not living together, a Death, divorce, etc	63	16.1
	junior high school graduate or less	35	8.9
	high school graduation	188	48.0
	two-to-three year college graduation	28	7.1
	above college graduation	30	7.7
	don't know	48	12.2
father's job existence and nonexistence	not living together, a Death, divorce, etc	82	20.9
	have a job	288	73.5
	have no job	22	5.6
mother's job existence and nonexistence	not living together, a Death, divorce, etc	63	16.1
	have a job	245	62.5
	have no job	84	21.4
economic level	live very poorly (basic livelihood recipient)	87	22.2
	live poorly (second-level class)	77	19.6
	blind spot	65	16.6
	live in normal	143	36.5
	live in affluence	20	5.1
whole score satisfaction	be very unsatisfied	23	5.9
	be not satisfied	159	40.6
	be satisfied	184	46.9
	be very satisfied	26	6.6
subjective health condition	be unhealthy	25	6.4
	be healthy	231	58.9
	be very healthy	136	34.7

4.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학교생활적응의 평균값(sd)은 3.018(sd=0.472), 차별 경험 평균값(sd)은 1.098(sd=0.185), 부모자녀 의사소통 평균값(sd)은 2.314(sd=0.896)로 나타났다.

이처럼 차별 경험의 평균값이 다른 변수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고, 학교적응 생활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왜도는 절대값이 3을 넘지 않고, 첨도도 절대값 10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되어 이후 분석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mong variables

variables	N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Adaptation to School Life	392	1.00	4.00	3.018	0.472	-0.172	1.115
Discrimination Experience	392	1.00	2.00	1.098	0.185	2.278	5.395
Parent-Child Communication	392	1.00	5.00	2.314	0.896	0.996	0.838

4.3 주요 변수의 상관분석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차별 경험과 학교생활적응은($r=-0.124$, $p<0.05$)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학교생활적응은($r=0.345$, $p<0.01$)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차별 경험은($r=0.008$, $p>0.05$)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모두 0.5 이하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Variables	Adaptation to School Life	Discrimination Experience	Parent-Child Communication
Adaptation to School Life	1		
Discrimination Experience	-.124*	1	
Parent-Child Communication	.345**	.008	1

4.4 연구모형 검증 결과

4.4.1 차별 경험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분석

본 연구는 지역아동 센터 이용 청소년의 차별 경험,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성별, 부 직업 유무, 모 직업 유무, 전체성적 만족도)와 차별 경험 변수, 부모-자녀 의사소통 변수를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Model 1〉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인 성별, 전체성적만족도, 부 직업 유무 변수와 학교생활적응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Model 2〉에서는 〈Model 1〉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를 통제한 후 차별 경험 변수를 투입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Model 3〉에서는 〈Model 2〉의

변수를 통제한 후 부모-자녀 의사소통 변수를 투입하여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각 변수별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Model 1〉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해 성별, 부 직업 유무 및 전체성적만족도 등을 투입하였다. 전체성적 만족도는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229$, $p<0.001$). 성별의 경우 여자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149$, $p<0.01$). 반면, 투입된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서 부 직업 유무는 학교생활적응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Model 2〉에서 〈Model 1〉의 변수를 통제하고 차별 경험 변수를 투입한 결과, 통제변수인 전체성적만족도($\beta=0.190$, $t=4.463$, $p<0.001$)와 성별($\beta=-0.150$, $t=-3.113$, $p<0.01$) 변수는 여전히 학교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 경험 변수는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110$, $t=0.110$, $p<0.05$). 즉, 지역아동 센터 이용 청소년은 부모가 없다는 이유와 다문화 가정, 장애가 있다는 이유 및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차별을 경험할수록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Model 2〉에서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8.4%로 〈Model 1〉에 비해 1.2%($F=7.526$, $p<0.001$) 증가하였다. 〈Model 3〉에서도 통제변수인 전체성적만족도($\beta=0.219$, $t=4.099$, $p<0.001$)와 성별($\beta=-0.152$, $t=-3.266$, $p<0.01$) 변수는 학교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차별 경험 변수는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115$, $t=-2.482$, $p<0.05$). 부모-자녀 의사소통 변수는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331$, $t=7.153$, $p<0.001$). 즉 지역아동 센터 이용 청소년이 부모와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학교생활적응력이 높아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Model 3〉에서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17.9%로 〈Model 2〉에 비해 10.8%($F=15.209$, $p<0.001$) 증가하였다.

Table 4. The Influence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Adaptation to School Lifefactor analysis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Gender	-.140	-.149**	-3.032	-.143	-.152**	-3.113	-.141	-.150**	-3.266
father's job existence and nonexistence 1	-.013	-.011	-.117	-.020	-.017	-.184	-.077	-.067	-.749
father's job existence and nonexistence 2	.020	.019	.196	.022	.021	.222	-.051	-.048	-.537
whole score satisfaction	.153	.229***	4.673	.146	.219***	4.463	.127	.190***	4.099
Discrimination Experience				-.282	-.110*	-2.249	-.293	-.115*	-2.482
Parent-Child Communication							.174	.331***	7.153
F		7.526***			7.095***			15.209***	
R ²		0.072			0.084			0.192	
Adjusted R ²		0.063			0.072			0.179	
Durbin-watson					1.801				

*p<.05, **p<.01, *** p<.001, 성별더미(남=1, 여=0), 부 직업 유무 더미 1(사망, 이혼 등으로 안 계심=1, 현재 직업 있음/없음=0), 부 직업 유무 더미 2(현재 직업 있음=1, 사망, 이혼 등으로 안 계심/없음=0)

4.5 조절효과 검증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차별 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으로 검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수 있어 차별 경험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변수는 평균중심화 원리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차별 경험과 학교생활적응의 단계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차별 경험($\beta=-0.124$, $t=-6.049$, $p<0.05$)은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된다. 또한 종속변수인 학교

생활적응에 대한 차별 경험의 설명력은 1.5%로 나타났다.

둘째, 2단계에서는 1단계에 차별 경험과 부모-자녀 의사소통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학교생활적응과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차별 경험 변수는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의 값이 1단계 보다 미미하게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beta=-0.126$, $t=-2.678$, $p<0.01$). 부모-자녀 의사소통 변수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346$, $t=7.336$, $p<0.001$). 또한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차별 경험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변수의 설명력은 13.5%로 나타났다, 설명력의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01$).

Table 5. The Moderating Effect verification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between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School Adjustment

step	variables	B	β	t	F	R ²	adjusted R ²
1	Discrimination Experience→Adaptation to School Life	-0.315	-0.124*	-2.459	6.049*	0.015	0.013
2	Discrimination Experience(A), Parent-Child Communication(C)→Adaptation to School Life	-0.322	-0.126**	-2.678	30.343***	0.135	0.131
3	A X C → Adaptation to School Life	0.182	0.346***	7.336	25.249***	0.163	0.157
		-0.239	-0.094*	-1.978			
		0.167	0.318***	6.750			
		-0.581	-0.174***	-3.628			

*p<.05, **p<.01, ***p<.001

셋째, 3단계에서는 2단계에 차별 경험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을 투입하여 살펴보면, 차별 경험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은 학교생활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174$, $t = -3.628$, $p < 0.01$). 전체 변량의 설명력은 16.3%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설명력의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001$).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차별 경험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차별 경험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 어떻게 조절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검증결과를 요약하고 그에 따른 담론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이 차별을 경험 할수록 학교생활적응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별 경험에 노출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학교생활적응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을 볼 수 있다[20].

이처럼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여주기 위해서 사회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와 서로 다른 문화의 수용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게 한다[21]. 서로를 인정함을 통해 차별을 감소시키고 피해를 예방하며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은 가족의 다양함에 대한 교육과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에 대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은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이 부모에게 자신의 고민과 학교생활 등에 관한 대화를 함으로서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 경우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14].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22,23]에서

도 개방형 의사소통은 학교생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셋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차별 경험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차별 경험에 노출된 청소년 자녀가 가정에서 부모와 학교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여가활동을 하며, 정치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화와 영화 나 TV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학교생활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차별 경험과 학교생활적응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이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부모와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줌으로써 청소년의 자아증진과 또래집단 간의 관계성 회복을 통해 학교생활에서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24].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도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연구대상이 전체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패럴 대상자로 고정했다는 점에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른다.

둘째,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지 못하고 일부 변수로 한정했기 때문에 이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를 적용할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셋째, 2차 자료이고 조사 당시와 분석 시기가 해를 지났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를 적절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차별 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살펴 보았다는데 있어 의의가 있다고 본다.

REFERENCES

- [1] J. I. Jeon & S. H. Cheon. (2008). The Effects of Adolescent's Leisure Activities and Peer Attachment on Adaptation in School Life. *Journal of social welfare development*, 14(2), 163-187.

- [2] E. S. Moon. (2002). *structural analysis of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related to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behaviors*. Doctoral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 [3] S. K. Kim, & J. W. Choi, J. M. Kang & A. R. Sun. (2016).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Juvenile Discrimina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4] K. H. Jeong. (2016). Impact of The Experience of being Discriminated on Their Experience of Discrimination-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education for human righ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55, 31-55.
- [5] M. S. Hong & S. Y. Lee. (2017). The Effect of Adolescents' Relationship with the Peers and the Teachers on School Life Adaptation by the Mediation of Self-Esteem. *Journal of Social Welfare Management*, 4(1), 183-211.
- [6] H. S. Shin & M. R. Im. (2005). The Mediating Effect of Horizontal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School Adaptation of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2(1), 103-126.
- [7] M. E. Wooley & A. G. Kaylo. (2006). Perspective Family Factors in the Context of Neighborhood. Promoting Positive School Outcomes. *Family Relation*, 55, 94-104.
- [8] S. G. Kim. (2007). *Development of multi-system assessment tool for school social work practices : with a basis on ecological perspective*.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 [9] M. R. Lee. (2001). *Study on the Social Support System to Influence on the High School Students' Adaptation to School Life*.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 [10] K. H. Lee. (2011). *Elementary School Children's Perception of the Relations between Father, Mother-Child Communication, Siblings Intimacy Degree and School Adaptation*. Master's Thesis. Changwon University, Changwon.
- [11] H. O. Bae & S. H. Kim. (2004). Discrimination Status and Related Factor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Korea Academy of Disability and Welfare*, 1, 61-83.
- [12] J. R. Cross & K. L. Fletcher. (2011). Associations of parental and peer characteristics with adolescents'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6), 694-706.
- [13] S. B. Lee. (2016). *The Influ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Experiences of Human Rights Violation on the Behaviors of Discrimination: A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Focusing on the dog effect*. Master's Thesis. Ewha Women University, Seoul
- [14] Y. A. Chang & J. E. Park. (2011). The Influence of Parent-Child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and Internet Use on Children's Adaptation to School Lif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20(4), 319-331.
- [15] J. Y. Lee & K. A. Lee. (2004). Individual and Familial Factors In Relation to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6(2), 261-276
- [16] H. M. Nam & S. W. Ok. (2001).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Family Environment, Self - control and Friends Characteristics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ir Problem Behavior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9(7), 37-58.
- [17] J. H. Kim. (1996).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ome environment and school adapt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Master's Thesis. Sookmyung University, Seoul.
- [18] J. S. Kim. (1995). *Study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Mother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Effects on Self Esteem*. Master's Thesis. Ewha Women University, Seoul.
- [19] J. H. Gross, E. W. Crandall, M. M. Knoll. (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y*, 5th ed.,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Inc*.
- [20] H. S. Choi. (201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relationship with parents, self-esteem, and school life adjustment - Focusing o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2), 195-217.
- [21] B. E. Seo. (2015). Mutual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consciousness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of Korean youth.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13(2), 111-120.
- [22] J. H. Park. (2010). *The influe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and parents on school life*.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 [23] H. S. Han.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school life adaptation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lasticity and the auxiliary effect of social support. Master's Thesis. Ewha Women University, Seoul.

- [24] M. H. Park & J. W. Moon. (2016).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Adolescents' School Life Adaptatio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20(2), 131-152.

김 선 희(Sun-Hee Kim)

[정회원]



- 2010년 2월 : 건국대-학점-사회복지학전공(문학사)
- 2012년 8월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사회복지학 석사)
- 2019년 2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 관심분야 : 보건, 복지
- E-Mail : sunhe0201@naver.com

박 명 선(Myoung-Sun Park)

[정회원]



- 2003년 2월 : 수원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전문학사)
- 2007년 2월 : 호원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 2012년 8월 : 광운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9년 2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사회복지학박사)
- 관심분야 : 보건, 복지
- E-Mail : myoung8064@hanmail.net

고 백 합(Baek-Hap Ko)

[정회원]



- 2006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사
- 2017년 2월 :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 2020년 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가족, 청소년, 부부
- E-Mail : lily2561@naver.com

손 은 정(Eun-Jeong Son)

[정회원]



-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보육학 졸업
-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졸업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 박사과정 재학
- (현) 해밀원격평생교육원 교강사
- (현) 함께이룸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 (현) 가온스쿨지역아동센터 센터장
- 관심분야 : 보건, 노인
- E-Mail : sej9330@hanmail.net

우 안 순(Ann-Soon Woo)

[정회원]



- 2011년 2월 : 한세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미술치료 석사
- 2020년 3월 한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행정학 박사
- 한세대학교 겸임교수
- 관심분야 : 미술치료, 사회복지
- E-Mail : annyung62i@hanmail.net

이 재 봉(Jae-Bong Lee)

[정회원]



- 1997년 2월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
- 2007년 2월 : 중앙대학교 복지행정학과 (행정학석사)
- 2019년 2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사회복지학박사)
- (현) 한세대학교 겸임교수
- 관심분야 : 보건, 복지
- E-Mail : skhu2007@hanmail.net